

■ 남문기 컬럼 | 뉴스타 부동산 그룹 회장
www.newstarrealty.com

8,15 소고(小考)

6년 전인가 7년 전으로 기억된다. 당시 서울 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던 박지향 교수가 한국과 인도의 현대사를 간략하게 기술한 것 이 주요 언론에 게재된 적이 있어 필자는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다. 이 글은 그 기억을 토대로 한국인의 위대성을 다시 정리하면서 재미 한인들 및 해외거주 한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한다.

같은 8월 15일에 독립된 한국과 인도의 차이점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세계사의 가장 예외적 성공사례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실현시킨 나라는 대한민국 이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미국 이민사에도 타민족이 미국에 이민 와서 짧은 시간 내에 자리를 잡고 미국경제의 한 죽을 이루고 있는 민족도 이스라엘과 한국 이외는 그리 많지가 않다.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50여 년 전 아시아 최대 부국 중의 한 나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낙후된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 힘을 쓰고 있는 중에 있다. 우리 민족은 6,25라는 동족상쟁(同族相爭)의 참담한 비극도 겪었지만 우리는 이제 60여년 전 초라한 모습과 전혀 다른 위상을 누리고 있다.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인도는 엄청난 크기와 찬란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위대한 민족지도자 간디를 배출했다. 그러나 인도는 1990년대 초에야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덕분에 한때 50%에 육박하던 빈곤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중국을 경제 할 수 있는 나라로 부상 중에 있다. 한국과 인도의 경험에서 보듯이 국가 만들기에서 민주주의, 경제발전, 국가수호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승만과 박정희로 대표되는 한국의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 수호와 경제 발전을 우선과제로 삼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후순위에 두는 결정을 내렸다. 그 와중에 상당한 폭력과 희생이 따랐지만 우리는 절대 빈곤을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거쳐 민

주화까지 이루고 지금의 정보화시대에 리더 국가가 되었으니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한 나라이다. 반면 인도의 국가 지도자들은 민주주의 유지와 사회주의적 경제발전 기조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 과정에서 인도는 폭력과 희생은 거의 없었지만 국가 기조의 중요한 기본인 경제발전을 지연시키고 말았다. 그 예로 1950년 당시 똑같았던 한국과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태평양을 건너 온 재미한인들과 해외거주 한인들은 어떠했는가? 6.25 이후 많은 여성들이 주한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와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본격적인 한인 이민사가 열리기 시작했고 1980년대 무렵, 국가의 이민 장려정책에 수 많은 한인들이 태평양을 건넜다. 언어의 장벽을 뚫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이민 초기에는 잔디깎기, 청소, 봉제 공장일들이 주요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속에서 타 민족과 비교한 한국인의 생활 수준은 필자가 기술하지 않아도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이민 온 우리 재미 한인들을 비롯한 해외거주 한인들은 개인별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수 만 명을 넘어 수십 만 명의 한인이 십시일반으로 조국에 송금된 달러가 한국 경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기여되며 국가 인프라인 고속도로건설과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에 귀중하게 사용되었다. 참으로 해외거주 한인들은 지금의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한 자랑스러운 한인들이다. 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300불을 손에 들고 LA공항에 도착한 이후 청소부 일로 시작된 이민 생활이지만 어떡하든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하나로 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어렵게 번 돈을 한국의 명절 때나 중요한 날에 송금을 하며 미국생활을 해냈다. 어디 필자뿐이겠는가? 성공한 이민 세는 모두 필자와 같은 눈물 젖은 뺨을 먹었을 것이다. 이 위대한 정신을 우리들의 2세, 3세들에게 계승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미국 속에 한인이 대통령을 비롯,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토양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미 한인 및 해외거주 한인들의 진정한 8,15가 될 것이다.